

영상 아카이브 [완주예술인 ON]

희망과 빛을 그리는 아름다운 '류재현' 작가

길과 숲을 그리는 화가 류재현입니다.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대학 졸업하고, 학교에서 아이들을 미술을 가르치다가 지금은 학교를 일찍 명예퇴직을 하고 전업으로 작품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대학을 사범대 미술교육과를 갔기 때문에 학교에 발령을 받고 오랜시간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가르치고 함께하다가 제 원래 꿈이 원래 화가였기 때문에 제 작업을 많이 하는 아니지만

친구들과 같이 전시를 하면서 쪽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008년 제 나이 45살에 첫 개인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제 작품활동에 매진하고 되고 지금까지 작업을 하면서 쪽 전업작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림을 그리게 된 계기는?

그림을 그린 이유는 제가 좋아했고, 다른 것보다 잘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노트나 교과서에 낙서하고, 그래서 선생님, 부모님한테 혼도 많이 났지만 그래도 뭔가 내 스스로 만족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 그리고 또 그렸어요

어렸을 때부터 잘했던게 그림이었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진로를 나중에 커서 화가가 되어야겠다.

그런데 그 현실은 그렇지 못해서 부모님 반대도 심했고, 그래서 진로를 고3이 되어서야 미술대를 가기로 확정을 하고 진학 준비를 했고, 대학을 미술교육과를 가게 되었고 지금까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길과 숲을 소재로 그림을 그리는 이유는?

아마 저희 세대가 대학 다녔던, 옛날 386세대라고 했는데 군사독재 말기의 어지러웠던 암울한 시기에 학교를 다니게 되면서 사회문제들이 강하게 저희를 짓눌렀던 시기였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자연스럽게 길이라고 하는 모티브에 관심이 가게 되고, 그 길을 통해서 사회적인 이야기, 인생의 이야기들을 길을 통해서 풀어오는 작업을 꾸준히 대학 졸업 무렵 때부터 해오고 있었는데, 쪽 이어오면서 나이가 40 중반이 되면서 그 길이 숲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숲속에 난 조그만 오솔길을 통해서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예전 젊었을 때 그렸던 길이라고 하는 모티브가 주는 메시지가 사회적인 저항이기도 하고, 죽음이기도 하고, 고통이기도 하고 그래서 네거티브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면 제 인생 중반을 넘어오면서 숲으로 들어와서는 그게 완전히 바뀌어서 생명이고, 희망이고 그래서 빛을 추구하게 되고 과거의 네거티브에서 포지티브로 바뀌는 현재는 숲속에 난 길을 통해서, 경우에따라 물길을 통해서 길 넘어에 있는 공간에 대한 욕망이기도 하고, 내 삶의 대한 희망이기도 하고 숲을 통해서 보여 주고 있습니다.

그림 그리는 일 외에 하는 일은?

제가 시골에 들어오고 싶었던 가장 큰 이유는 그림이 아니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농사도 짓고 싶었고, 야생화 키우는 것을 좋아하는데 화초를 키우고 싶어서 전원주택이 필요했고 서둘러서 나오고 싶었습니다.

물론 미술전공을 했기 때문에 작업실을 갖고, 그림을 그리는 것도 로망이었습니다. 도시를 나와서 작업실을 갖게 되고, 작업을 하면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계절에 맞춰서 고추도 심고, 배추도 심고, 상추도 심고, 오이도 심고 이걸 수확해서 가족들이 같이 먹고, 또 주변 이웃들에게 나눠 주고 아주 큰 재미죠.

저는 시골에서 하고 있는 일이 작업하고, 밖에 나가서 농사 짓고 그리고 젊어서 못했던 공부를 늦은 나이에 시작하게 되어서 지금 대학원 박사과정을 다니고 있어요. 작년에 입학했으니까 올해 2년차인데 많이 힘들죠. 늦게 공부하려니까 현재는 작업하고, 틈틈이 책보면서 학업에 열중하고 그게 저의 일과입니다.

오랫동안 친구들과 길을 함께 했는데, 친구들 소개해 주세요.

저는 대학 졸업하고 사범대학이었기 때문에 바로 학교에 발령을 받아서 교직에서 계속 생활을 했죠. 그러다 보니 작업할 수 있는 물리적인 시간들이 여의치 않았습시다.

대학에 같이 다녔던 친구들과 의기투합해서 녹색종이라고 그룹을 만들었습니다.

처음 발기했던 친구들이 8명이었는데, 친구들과 매년 전시를 꾸리면서 그나마 1년에 3개월 정도 작업을 하면서, 준비하고 전시하고 그러다가 다시 생활로 돌아와서 물감하고 이별하고 살다가 또 다음 전시 시즌이 되면 다시 또 작업하고 근 20년을 생활을 했는데, 그래서 같이 했던 그룹의 친구들이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작업하는 화가로서 설 수 있게 한 정말 가장 소중한 친구들이죠

그 친구들이 없었으면 아마 일찍 붓을 던져버리고 교사로서, 그냥 생활인으로서 끝났을 텐데

그 고마운 친구들이 항상 주위에 있었기 때문에 서로 자극을 받으면서 작업을 이어올 수 있었고 지금 내가 늦게나마 작품활동을 꾸준히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미술을 어렵게 생각하는 분들에게, 어떻게하면 가까워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생활하면서 음악, 미술, 문학 등 예술이란 것들을 항상 같이 살 수밖에 없는데 음악은 우리가 조금 더 쉽게 접근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본인도 표현을 노래방가서 쉽게 노래 부르고 거기에 대해 두려움을 갖거나 나 노래 잘 못 부르는데 하는 것 보다는 음치면 음치대로 노래를 불러요 그런데 미술은 그림을 잘 그려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더 강한 것 같아요

물론 그게 미술교육에서 사과를 내놓고 똑같이 그려라하는 선생님의 가르침 때문에 굳어졌는지 모르겠지만, 한편으로 보면 그림은 흔적이 남잖아요. 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더 큰 거 같아요

노래는 한번 부르면 흘러지나 가지만 미술도 똑같이 낙서하듯이, 생활하면서 흥얼거리듯이 느낌 있을 때 아니면 뭔가 그리고 싶으면 그냥 그리고 그 두려움 없애면 되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음악은 듣는 거고 내 공간에서 라디오나 오디오를 통해서 아무 때나 들을 수 있지만, 미술은 내가 전시장 가야만 볼 수 있기 때문에 한계는 있어요

전시장 가는 것을 생활화하면 미술관하고 가까워지고, 동네에 있는 갤러리하고 가까워져서 틈날 때, 주말에 가서 자꾸 보고, 많이 접하는게 가까워지는 조건인 것 같아요.

미술을 지식적인 것보다는 미술은 느낌으로, 감정으로 받아 들여야지 분석해서 이론으로, 철학으로 받아들이면 너무 어려워요. 쉽게 가서 느끼고, 자주 미술관을 가서 우리와 가까워 지면 좋을 것 같아요.

완주에서 예술인으로 살아간다는 건?

그림을 통해 밖으로, 세계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림을 통해서 사람들은 저를 알아갑니다.

또 사람들은 저를 통해 제가 살고 있는 여기! 전북 그리고 완주를 알아갑니다.